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A Study on the Political Trends during the Mid-End of the Silla Age through the Reexamination of the Marriage of King Hyegong

저자
(Authors) 曹凡煥
Cho, Bum-hwan

출처
(Source) [신라문화 43](#), 2014.2, 227-248 (22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3](#), 2014.2, 227-248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8122>

APA Style 曹凡煥 (2014).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신라문화, 43, 227-24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4 11: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曹 凡 燠**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III. 惠公왕의 친정과 後妃와의 혼인 |
| II. 滿月夫人의 섭정하에서 惠公왕의 혼인 | VI. 맺 음 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라 중대말 惠公왕대의 정국 변화와 혼란을 왕의 혼인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惠公왕대의 정국이 왕당파와 반전제주의파와의 대립으로 파악되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惠公왕은 두 번이나 혼인을 하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중대 왕실의 혼인 방식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는 만월부인이 섭정하는 동안 신보부인과 먼저 혼인을 하였고 이후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하면서 후비인 창창부인을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였다. 惠公왕이 후비를 맞이한 것은 섭정 세력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왕 자신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혼인은 결국 섭정에 참여하였던 세력과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왕과의 정치적 대립을 불러왔다.

惠公왕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돌아보면 그의 혼인 시점에 대하여 제대로 언급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惠公왕이 신보부인과 혼인을 한 것은 惠公왕이 즉위한 지 5년 째 되던 해이고, 둘째 왕비를 맞이한 것은 惠公왕 10년 무렵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 惠公왕을 지지하던 세력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왕권을 위협하게 되자 그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본인과 왕비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신라 중대의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20006)

** 서강대 사학과 교수

[영문초록]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political trends during the middle-end of the Shilla Age when King Hyegong reigned through a close study of the king's marriage. King Hyegong married twice. His first wife, the first queen, was the daughter of Yuseong, the close aide of Mrs. Manwol. His second wife, the second queen, was Mrs. Changchang, the daughter of Kim Jang.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time demanded these different alliances. His first marriage attempted to settle the questions surrounding the regency of the Empress Dowager; his second marriage attempted to strengthen the Throne by creating a situation where the king could administer political affairs on his own.

His two marriages were not unusual. The king married for the political purposes just as late kings of Silla had done. To put it another way, King Hyegong took away his first wife's title as queen and closed her out of the royal court, then met, married, and queened another woman, all in order to strengthen the Throne, just as the late kings did. Although his purpose was to strengthen his position and his title, King Hyegong's actions sowed discontent within a group of Kim Yang-Sang's followers—discontent that ultimately drove the king to his death. King Hyegong's actions mimicked those of the late kings even in the way his attempts to strengthen the throne failed. Although forces of the insurgency executed King Hyegong, his second marriage proved to be the foundation for the emergence of a new era of the late Silla.

[주제어] 혜공왕(King Hyegong), 만월부인(Mrs. Manwol), 섭정(aide), 선비(the first queen), 후비(the second queen), 신보왕후(queen sinbo), 창창부인(Mrs. Changchang), 왕권강화(aim to strengthen the Throne), 김양상(Kim Yang-Sang)

I. 머리말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惠恭王(765~780)은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왕모인 滿月夫人이 攝政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반란을 겪는 과정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 그 결과 신라 중대가 끝나고 하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되었음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혜공왕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혜공왕대 정국의 동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¹⁾ 지금까지도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20006)

** 서강대 사학과 교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와 같이 혜공왕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혜공왕의 婚姻에 대한 것이다. 史書에 따르면 그는 두 명의 왕비를 두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혜공왕이 언제 혼인을 하였는지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다. 또한 先妃와 後妃가 동시에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선비가 어떤 이유로 물러난 다음에 후비를 맞이하였는지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혜공왕의 혼인과 관련하여 매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혜공왕대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다지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³⁾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혜공왕이 첫째 왕비인 新寶夫人을 맞이한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왕비인 昌昌부인을 왕비로 맞이한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혜공왕의 혼인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는 신라 중대말 혜공왕대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II. 滿月夫人의 섭정하에서 혜공왕의 혼인

혜공왕의 혼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다음의 기록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A-1. 元妃인 新寶王后는 이찬 維誠의 딸이고 次妃는 이찬 金璋의 딸인데 史

- 1) 혜공왕대의 정치사에 대한 연구 성과 정리는 전덕재, 2007, 「신라 중대」 『한국고대사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pp. 139~142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것.
- 2) 김수태,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新羅史學報』22를 주목할 수 있다.
- 3) 혜공왕의 혼인과 관련하여 이영호는 2003, 「新羅의 王權과 貴族社會-중대 국왕의 혼인 문제를 중심으로-」 『新羅文化』22, p. 85에서 원비와 차비 모두가 만월부인 섭정기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으며, 두 명의 왕비를 동시에 둔 것은 특정 가문에 의한 왕실지배에서 벗어나 귀족사회의 화합을 위한 혜공왕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같은 논문, p. 89에서 “혜공왕 13년(777) 상대등 김양상이 시정을 극론한 것을 보면 차비의 입궁은 이 무렵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해석과 추론은 혜공왕의 혼인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논증이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

書에는 궁중에 들어온 날짜가 빠져 있다(『三國史記』 권9, 惠恭王 16년)

A-2. 先妃는 神巴부인으로 魏正 각간의 딸이고, (다음) 왕비는 昌昌부인으로 金將 각간의 딸이다(『三國遺事』 권1, 왕력1 제36 惠恭王)

위의 A-1과 A-2의 두 기록을 보면, 혜공왕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첫째 왕비가 新寶와 神巴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는 데는 거의 동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또한 A-1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둘째 왕비명에 대해서 A-2에서는 昌昌부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후비의 이름도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혜공왕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찬 유성의 딸을 먼저 왕비로 삼은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시점에서 창창부인을 새로운 왕비로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1과 A-2의 기록에서 서로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혜공왕의 첫 번째 왕비에 대하여 A-1에서는 元妃라 하였는데 비하여 A-2에서는 先妃라고 하고 있다. 원비와 선비는 각각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즉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원비와 차비로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왕비가 복수임을 나타낸다고 한다.⁴⁾ 다시 말해서 한 왕대에 두 명의 왕비가 동시에 존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A-1의 기록은 혜공왕이 유성의 딸 신보부인을 맞이한 다음 어느 시점에서 다시 김장의 딸 창창부인을 맞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A-2에서는 유성의 딸 신파부인을 선비라 하였으며 이어서 후비로 지칭하지 않은 채 妃인 창창부인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⁵⁾ 선비는 처음 맞이한 왕비를 말하는 것이고, 비록 A-2에서 후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로만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⁶⁾ 이는 후비에서 ‘후’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먼저 왕궁에 들어왔던 선비가 사망을 하였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음을 암시한다.⁷⁾

그러면 위의 두 기록 가운데 어떤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울까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은 혜공왕이 두 명의 왕비를 동시에 두지 않았음을 입증

4) 李泳鎬, 2011, 「통일신라시대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p. 48.

5) 원문은 ‘先妃神巴夫人 魏正角干之女 妃昌昌夫人 金將角干之女’로 되어 있다.

6) 아무래도 판단하는 과정에서 후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魏正角干之女와 妃昌昌夫人 사이에 한 글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발견된 과문본 『삼국유사』 왕력편을 참고하였다.

7) 李泳鎬, 2011, 위의 논문, p. 47.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B-1. 처음 왕비(先妃)는 陪昭황후로 시호는 嚴貞이니 원대 아간의 딸이다. 다음 왕비(後妃)는 占勿왕후로 시호는 炤德이니 순원 각간의 딸이다(『三國遺事』권 1, 왕력 1, 聖德王)

B-2. 처음 왕비(先妃)는 三毛부인으로 궁중에서 폐출되어 후사가 없었다. 다음 왕비(後妃) 滿月부인으로 시호는 景垂왕후이니 의충 각간의 딸이다(『三國遺事』권1, 왕력 1, 景德王)

위의 B-1과 B-2의 두 기록을 보면 聖德王과 景德王도 두 명의 왕비를 두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덕왕의 선비인 엄정왕후나 경덕왕의 선비인 삼모부인은 하나 같이 출궁을 당하였다.⁸⁾ 그런데 B-1과 B-2의 기록에서 출궁을 당한 왕비를 선비라 하였고, 선비 다음에 들어온 왕비를 후비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보면 혜공왕도 선비인 신보부인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출궁시키고 두 번째 왕비인 창창부인을 맞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A-2의 기록에서는 후비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적어도 B-1과 B-2의 기록을 예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A-1의 기록보다는 A-2의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해가 허락된다면 혜공왕은 유성의 딸과 혼인을 한 이후 어느 시기에 이르러 첫 번째 부인인 신보부인을 출궁시키고 김장의 딸 창창부인을 후비로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 결국 혜공왕의 혼인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선비가 있는 상태에서 후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선비가 왕궁을 나간 다음 후비를 맞이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⁰⁾

그러면 이제 혜공왕이 선비인 신보부인과 언제 혼인을 하였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¹¹⁾ A-1과 A-2의 기록에서는 왕비가 궁중에 들어온 날짜를 알려주

8) 『三國史記』권8 聖德王 15년 3월 및 『三國遺事』권1, 왕력1, 景德王

9) 박해현은 원비를 선비가 아니라 후비로 파악하여 곧 김장의 딸이 선비이고 신보왕후를 후비로 파악하고 있다(박해현, 2003, 『新羅中代 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p. 174).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적어도 선비라고 한 것을 보면 유성의 딸 신보부인이 창창부인보다 먼저 혜공왕과 혼인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0) 혜공왕이 선비를 출궁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11) 金壽泰는 혜공왕의 혼인은 즉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金壽泰, 1996, 앞의

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해공왕이 언제 혼인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왕비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곧바로 당대 정치와 매우 유관한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보이지 않는 혼인의 시기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면 해공왕대의 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알려주는 기록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해공왕 즉위 초반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혼인의 시기를 유추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선 해공왕은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후인 만월부인이 섭정을 하였음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¹²⁾ 그녀가 언제까지 섭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늦어도 해공왕 11년 이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¹³⁾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해공왕이 선비인 신보왕후와 혼인을 한 시기는 만월부인의 섭정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경덕왕대 아들을 얻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월부인의 입장에서도 아들인 효공왕이 일찍 혼인을 하여 후사를 잇기를 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공왕 11년이 되는 해는 해공왕이 무려 18세의 나이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예컨대, 경덕왕의 경우에도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태자로 책봉되었을 때의 나이가 15세 무렵이었고¹⁴⁾ 그 이전에 혼인을 하였으므로 해공왕도 15세를 넘겨 혼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¹⁵⁾

책, p. 127). 그런데 이는 매우 애매한 표현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나 의미상으로 볼 때 해공왕 즉위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12) 『三國史記』 권9, 해공왕 즉위년

13) 해공왕 11년은 그의 나이가 18세가 되던 해 이므로 친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해공왕이 언제 친정을 시작하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와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壽泰, 2011, 앞의 논문, pp. 154~159을 참조할 것.

14) 소덕왕후는 성덕왕 19(720)년에 왕비가 되었고 성덕왕 23(724)년 12월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소덕왕후는 왕비로 지내는 기간 동안 두 명의 아들을 두었다. 바로 효성왕이 된 승경과 경덕왕이 된 현영이 바로 그들이다. 현영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724년 이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태자로 책봉된 해가 효성왕 3(739)년이고 임금이 된 해가 742년이므로 18세를 전후하여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자로 책봉되었을 때의 나이는 적어도 15세 무렵으로 짐작할 수 있다.

15) 거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경덕왕이 삼모부인과 혼인한 시기를 태자로 책봉되던 효성왕 3년 무렵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濱田耕策, 1980, 「新羅の聖德大王神鐘と

C. 우리러 생각컨대 태후께서는 은혜로움이 땅처럼 평평하여 백성들을 어진 교화로 교화하시고 마음은 하늘처럼 맑아서 부자(경덕왕과 혜공왕)의 효성을 장려하셨다. 이는 아침에는 元舅의 어짐과 저녁에는 충신의 보필을 받아 말을 가리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행동에 허물이 있으리오. 이에 유언을 돌아보고 드디어 옛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¹⁶⁾(金弼輿 撰, 「聖德大王神鐘銘」)

위의 C의 기록은 「聖德大王神鐘銘」 가운데 일부분으로 혜공왕대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元舅가 눈에 들어온다. 현재 원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왕의 외숙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金崑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성덕대왕신종에 보이는 원구가 김용임을 입증시킬 수 있는 사료는 없다.¹⁸⁾ 또한 김용이 성덕대왕신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관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너무나 단순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원구를 왕의 외삼촌에서 그리고 김용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겨낼 필요가 있다. 도리어 원구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도 혜공왕의 혼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구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왕의 장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원구를 외삼촌이 아닌 장인의 뜻으로 받아들일 경우 혜공왕은 성덕대왕신종이 조성되었을 때는

中代の王室』『响沫集』3, : 2002, 『聖德大王神鐘と中代の王室』『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 190을 참고할 것. 또 박해현, 1997, 「신라 경덕왕대의 외척세력」 『한국고대사 연구』 11 : 2003, 「景德王代 外戚勢力과 王權의 動搖」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p. 122에서도 빈전경책과 같은 견해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신정훈,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8세기 신라의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한국학술정보, 42쪽의 주 36)에서도 경덕왕이 삼모부인과 혼인한 시기를 효성왕 2~3년 무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달리 鈴木靖民은 1967, 「金順貞·金崑論濱-新羅政治史の一考察田-」 『朝鮮學報』 45 ; 旗田巍·井上秀雄 編, 1974, 『古代の朝鮮』, 學生社, 187쪽에서 성덕왕대 김순정이 정무에 참여하였을 때 그의 딸이 현영과 혼인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6) 仰惟太后 恩若地平 化黔黎於仁教 心如天鏡 獎父子之孝誠 是知朝於元舅之賢 夕於忠臣之輔 無言不擇 何行有愆 乃顧遺言 遂成宿意

17) 金崑을 만월부인과 혈연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해현, 2003, 앞의 책, p. 124 및 濱田耕策, 2002, 앞의 책, 吉川弘文館, 187쪽 그리고 이영호, 1995,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경북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7 참조. 또한 鈴木靖民, 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p. 319~322 참조.

18) 全德在, 2007, 앞의 논문, p. 142.

19) 金壽泰, 2011, 앞의 논문, p. 152.

이미 혼인을 하였고 장인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혜공왕이 장인의 도움을 받아 정치를 하였음을 알려준다. 성덕대왕신종이 완성된 것은 혜공왕 7(771)년이므로 이 종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혼인을 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덕대왕신종의 주조가 이루어진 해에는 이미 혜공왕이 신보부인과 혼인을 한 상태였다고 단정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혜공왕은 성덕대왕신종이 주조되기 직전에 혼인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도리어 성덕대왕신종이 주조되기 이전 어느 시기에도 혼인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혜공왕의 혼인을 알려주는 기록은 비록 없지만 다음의 기록이 또 우리의 주목을 끈다.

D. 당나라 代宗이 倉部郎中 歸崇敬에게 御史中丞을 겸직시켜 보내, 부절과 책봉조서를 가지고 와서 왕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으로 책봉하고 어머니 김씨를 대비로 책봉하였다(『三國史記』 권9, 혜공왕 4년 봄)

위의 D의 기록을 보면 혜공왕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 4년이 되었을 때 중국에서 사신인 歸崇敬을 보내와 왕을 책봉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만월부인을 대비로 책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효공왕의 지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왕의 모후가 신라 중대에 책봉을 받은 것은 유일한 예이다.²⁰⁾ 이는 만월부인이 대외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 국내 정치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만월부인의 대비 책봉은 그녀의 정치적 위치를 한결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는 도리어 그녀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이전에는 정치적 위치가 불안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²²⁾ 사정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비록 어린 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였으나 그 영향력이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으로부터 대비로 책봉된 이후에는 적어도 사정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적어도 그녀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E. 태자가 8세 때에 왕이 돌아가 왕위에 오르니, 이가 惠恭大王이다. 나이가

20) 金壽泰, 1996, 앞의 책, p. 127.

21) 金壽泰는 1996, 앞의 책, p. 127에서 만월부인에 대한 책봉에 대하여 “혜공왕의 모후인 만월부인은 이러한 대외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결국 신라 국내의 정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22) 신정훈, 앞의 책, 2010, 한국학술정보(주), p. 127.

어렸으므로 태후가 조정에 나섰으나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미처 막을 수가 없었으니, 표훈 스님의 말이 맞았다(『三國遺事』 권2, 기이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위의 E의 기록을 보면 혜공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자 만월부인이 섭정을 하였다. 그렇지만 정사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혜공왕 즉위 초반기의 정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보았듯이 혜공왕 4년 봄에 당에서 만월부인을 대비로 책봉하게 되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월부인이 대비로 책봉되던 같은 해 7월에 일길찬 大恭과 아우 이찬 大廉이 함께 난을 일으켰고 그의 무리가 33일간 왕궁을 에워싸고 있었으나 결국 왕의 군대가 평정을 하였다고 한다.²³⁾ 이 반란은 만월태후의 섭정과 대비 책봉에 반대하여 일으킨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²⁴⁾ 하지만 왕군이 토벌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만월부인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난을 평정한 다음 이찬 神猷를 상대등으로 이찬 金隱居를 시중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만월부인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²⁵⁾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만월부인은 혜공왕의 혼인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아진다. 비록 대공의 난을 진압하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정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월부인이 주도하는 정국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월부인은 정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포섭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을 것인데 바로 그 하나가 혜공왕의 혼인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녀는 이찬 유성을 주목하고 그녀의 딸을 혜공왕의 비로 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F. 臨海展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三國史記』 권9, 惠恭王 5년 봄 3월)

23) 『三國史記』 권 9, 혜공왕 4년 가을 7월

24) 박해현, 2003, 앞의 책, pp. 157~158 참조.

25) 李基白은 김은거가 반란 평정의 공으로 중시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李基白, 1958,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p. 233).

위의 F의 기록을 보면 해공왕 5년 봄에 임해전에서 큰 연회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 이르러 갑자기 연회를 베풀 이유를 구체적으로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⁶⁾ 임해전은 효소왕 6년(697) “군신들을 임해전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으며, 이후 왕이 임해전에서 군신과 회합이나 연회를 베풀었던 기록이 『신라본기』에 4회 등장한다.²⁷⁾ 이러한 사실은 임해전의 연회가 보통의 연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 연회는 해공왕의 혼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어진다. 적어도 왕이 임해전에서 연회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사를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만월부인은 해공왕이 즉위한 지 5년만인 769년 초에 유성의 딸과 혼인을 시키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신하들을 임해전에 불러 모아 연회를 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해공왕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2살 무렵에 만월부인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만월부인이 굳이 유성을 해공왕의 장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A-1과 A-2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자. A-1에서는 유성으로 A-2에서는 위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인물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⁸⁾ 그리고 유성에 대해서 기왕의 연구에서는 그를 경덕왕 초에 중시에 임명된 惟正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⁹⁾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음상사에 따른 것으로 쉽사리 따르기가 힘들다.

유성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경력이나 경제적 기반 등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성덕대왕신종명에서 비록

26) 대공의 난으로 흐트러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로 보기도 하고(박해현, 2003, 앞의 책, p. 160), 정치적 불안이 안정화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과 아울러 새로 임명된 상대등과 시중에 대한 축하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신정훈, 2010, 앞의 책, p. 141).

27) 해공왕 5년(769), 현안왕 4년(860), 현강왕 7년(881), 경순왕 5년(931).

28) 李基白, 1970, 「新羅 執事部の 成立」 『震檀學報』 25·26·27합집 ; 1974, 『新羅政治社會史 研究』, 一潮閣, p. 168의 주 44)에서 同音異寫로 파악하고 있다.

29) 李基白, 위의 책, 1974, 168쪽. 惟正은 경덕왕 3년(744) 1월부터 4년(745) 5월까지 중시에 재임하였다고 한다. 만약 해공왕이 유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을 즈음에는 그가 중시에서 퇴임한 이후 약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가 살아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또한 그의 정치적인 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원구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정치적인 지위가 낮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유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것은 그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만월부인의 섭정 기간에 혜공왕의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유성은 적어도 만월부인의 지지 세력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당시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친당적 노선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만월부인의 섭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운 인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만월부인은 유성의 딸을 혜공왕의 비로 맞아들이고 그를 혜공왕의 정치적 후원자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한 이면에는 만월부인이 바라는 바도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를 통하여 자파의 세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유성은 혜공왕의 장인이 되자 만월부인과 정치적으로 더욱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혜공왕의 친정과 後妃와의 혼인

앞 장에서 혜공왕은 즉위한 지 5년 무렵에 모후인 만월부인의 주도로 이찬 유성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혜공왕은 김장의 딸 창창부인을 후비로 맞이하였다고 한다(A-1과 A-2 기록 참조). 그렇다면 혜공왕의 첫째 왕비인 신보부인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알려줄 기록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혜공왕이 신보부인과 혼인한 이후부터의 정치적 상황을 검토해보면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혜공왕이 신보부인과 혼인을 한 것은 재위 5년째 되던 해의 일로 짐작된다. 그리고 혜공왕이 친정을 시작한 것은 적어도 성덕대왕신종이 주도된 해부터라고 할 수 있으므로³⁰⁾ 혼인과 더불어 곧바로 친정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혜공왕은 혼인을 하였지만 모후인 만월부인의 섭정은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0) 혜공왕의 친정 시기에 대한 연구 검토와 더불어 친정 시기를 성덕대왕신종이 주도된 해로 새롭게 해석한 金壽泰의 견해에 따른다(金壽泰, 2011, 앞의 논문, pp. 154~159 참조).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혜공왕은 재위 6년째 되던 해 봄에 西原京에 거둥하였는데, 지나는 州와 縣의 죄수들의 정상을 살펴 사면하였다고 한다.³¹⁾ 그리고 4월에 서야 서원경에서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효공왕의 이러한 행차는 대공의 난을 계기로 하여 지방 세력의 이반 현상이 심각하게 표출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³²⁾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4개월이나 왕궁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라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아려진다. 특히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원경까지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만월부인의 섭정에서 벗어나 국정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음과 아울러 왕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왕궁으로 돌아온 지 약 4개월 만인 같은 해 8월에 대아찬 金融이 반란을 일으켰다.³³⁾ 김용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반혜공왕과의 반란에 가담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도 하고³⁴⁾ 효성 및 성덕왕대 외척세력의 비대로 말미암아 견제 때문에 그러한 일을 주도하였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³⁵⁾ 또한 만월부인의 섭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⁶⁾ 어쨌든 김용의 반란은 진압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만월부인과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이 난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난의 결과로 김은거가 시중직에서 물러나고 이찬 正門이 시중에 임명되었다.³⁷⁾ 김은거는 만월부인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인물이었는데³⁸⁾ 김용의 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것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³⁹⁾

비록 이와 같은 반란 사건이 있기는 하였지만 다음 해인 혜공왕 7년부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혜공왕의 친정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혜공왕은

31) 『三國史記』 권9, 혜공왕 6년 봄 정월

32) 박해현, 앞의 책, 2003, 161쪽. 신정훈은 왕의 서원경 행차와 관련하여 『三國史記』에 혜공왕이 일정한 때가 없이 대궐 밖으로 거둥하여 기강이 문란하였던 것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신정훈, 2010, 앞의 책, p. 145).

33) 『三國史記』 권9, 혜공왕 6년 가을 8월

34) 李基白, 1974, 앞의 책, p. 249.

35) 박해현, 2003, 앞의 책, p. 164.

36) 신정훈, 2010, 앞의 책, p. 146.

37) 『三國史記』 권9, 혜공왕 6년 12월

38) 김은거는 견당사로서 만월부인의 책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백, 1974, 앞의 책, p. 231 참조.

39) 李文基, 1999,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52, p. 829 참조.

만월부인의 섭정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상하게도 혜공왕 재위 7년째의 기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해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하게 한다. 그리고 혜공왕 재위 8년부터 10년까지는 반란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친정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왕권의 안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혜공왕 8년부터 12년까지는 매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있다. 이는 혜공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당나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⁰⁾

혜공왕이 친정을 주도하면서 왕권이 안정되어 가던 재위 11년 6월에 이찬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목 베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⁴¹⁾ 그리고 같은 해 가을 8월에는 이찬 廉相이 시중 정문과 함께 반역을 꾀하다가 목 베여 죽임을 당하였다.⁴²⁾ 이는 혜공왕 11년의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혜공왕이 친정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정국이 새롭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김은거와 염상 그리고 志貞 등은 모두 왕당파로서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³⁾ 그렇지만 김은거의 반란을 기왕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친왕과의 반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지만 김은거는 만월부인의 섭정 시기에 시중이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커다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김은거의 반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중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가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정국의 커다란 변화에서 기인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온당할 줄 안다. 즉 혜공왕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어떤 일에서 그와 같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보게 되는 것이다.

혜공왕은 만월부인이 친정하던 시기에 이찬 유성의 딸과 혼인을 하였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적어도 혜공왕과 신보부인과의 혼인은 그의 의지였다기보다는 모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는 모후와 연결되거나 혹은 모후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벗어나 그를

40) 李基白, 1974, 앞의 책, p. 235.

41) 『三國史記』권9, 惠恭王 11년 여름 6월

42) 『三國史記』권9, 惠恭王 11년 가을 8월

43) 金壽泰, 1996, 앞의 책, p. 132.

지지하는 세력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으로 정국을 이끌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신보왕후를 출궁시키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 보게 되는 것이다. 성덕왕이나 경덕왕의 경우에도 왕권을 강화하고 외척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비를 출궁시켰기 때문에⁴⁴⁾ 혜공왕도 전왕들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외척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모후 세력과 연결된 세력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혜공왕에게 있어 모후 세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정치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왕비의 출궁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러한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혜공왕의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에 대하여 당시 이찬 유성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일에 대하여 적잖은 불만을 가졌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만월부인도 혜공왕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을 것인데 김은거 역시 혜공왕의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또한 혜공왕이 친정을 하자 그 동안 만월부인을 중심으로 모였던 정치세력 가운데는 만월부인과 거리를 두고 혜공왕을 새롭게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났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계속해서 만월부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은 이들 가운데는 정국에서 소외된 자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러한 인물 가운데 김은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은거는 혜공왕의 선비 출궁과 아울러 정권에서 점차 소외되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김은거의 반란의 원인은 신보부인을 출궁시킨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은거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곧이어 같은 해 8월에 이찬 염상과 시중 정문이 모반을 꾀하였고, 진압되었다. 염상과 정문의 모반도 김은거의 반란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⁴⁵⁾ 특히 시중 정문이 시중직에서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혜공왕 6년 12월에 김은거가 시중에서 물러나자 그를 이어 시중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이 때 그가 시중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만월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은거의 반란이 실패한 이후

44) 조범환, 2011, 「新羅 中代 聖德王代의 政治的 動向과 王妃의 交替」 『新羅史學報』22, pp. 111~115 참조.

45) 이들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李基白, 1974, 앞의 책, p. 236 참조.

곧 이어 모반을 꾀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혜공왕의 친정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선비의 출궁으로 말미암아 정국에서 점차 소외당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⁴⁶⁾

지금까지 보았듯이 혜공왕의 친정은 만월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 동안 만월부인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정치세력은 점차 혜공왕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혜공왕의 정국에 대한 불만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은 쉽사리 간취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친정을 시작하고 얼마지 않아 선비인 신보부인을 출궁시킨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불만이 컸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결국 혜공왕의 친정에 대하여 모후 세력을 지지하던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혜공왕은 새로운 정치적 조치를 취하였다. 바로 혜공왕 12년의 교서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G. 교서를 내려 관직의 이름을 모두 옛 것으로 회복시켰다(『三國史記』 권9, 惠恭王 12년 봄 정월)

위의 G의 기록은 혜공왕 12년 봄 정월에 경덕왕대 시행한 한화정책을 다시 복구하였음을 알려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덕왕대 한화정책은 왕권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치였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복구하였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혜공왕이 친정을 하는 과정에서 모후세력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보아진다.⁴⁷⁾

혜공왕은 관호의 복구를 명한 다음에 곧바로 감은사에 거둥하여 망제를 지냈으며, 2월에는 국학에 거둥하여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혜공왕이 감은사로 거둥하여

46)李文基는 혜공왕의 친정이 1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염상과 정문의 반란이 혜공왕의 친정 개시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李文基, 앞의 논문, 1999, p. 829). 필자와 이문기의 견해는 서로 다른데 우선 친정의 시작 시기에 대한 것과 더불어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47) 이 때의 정국의 주도권이 김양상과 김경신에게로 넘어갔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金壽泰, 2011, 앞의 논문, 168쪽). 이와 달리 이문기는 혜공왕의 관호복고는 혜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혜공왕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경덕왕대 이래 모후 섭정기 동안 이어져 온 정국운영의 기초를 친정체제에 걸맞게 개혁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李文基, 1999, 앞의 논문, pp. 824~827). 필자는 이문기의 견해에 따른다.

망제를 지낸 것은 그의 정치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보아진다. 감은사는 신문왕 2년에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개창한 절이다.⁴⁸⁾ 그리고 그곳에서 망제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이와 더불어 주목할 사실은 혜공왕이 오묘제를 개혁하였다고 한다. 혜공왕이 오묘제를 개혁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연합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치를 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다.⁵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로 볼 수 있으며 혜공왕이 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정국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해 혜공왕은 7월과 10월에 각각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는 당을 통해 정권을 회복하려는 조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⁵¹⁾ 눈여겨 볼 점은 7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또 10월에도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다. 대체로 신라 중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7월이나 10월에 보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⁵²⁾ 또한 7월과 10월에 연이어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음을 예측케 한다. 아마도 7월에 보낸 사신에게 새로운 왕비를 들였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10월에 사신을 보낸 것은 7월에 보낸 사신에 대한 당왕조의 추인이 늦어지자 견디지 못한 신라 왕실에서 다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허용될 수 있다면 혜공왕은 12년 7월 이전에 김장의 딸을 둘째 왕비로 들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³⁾ 이는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세력과의 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김장의 딸을 후비로 맞이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⁵⁴⁾ 혜

48) 『三國遺事』 2, 紀異 萬波息笛

49) 신정훈, 2010, 앞의 책, p. 169.

50)李文基, 1999, 앞의 논문, pp. 832~833.

51) 李基白, 1974, 앞의 책, p. 235.

52) 權憲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일조각, pp. 57~60 및 pp. 69~70 참조

53) 李泳鎬는 혜공왕 13년(777) 상대등 김양상이 시정극론한 것을 보면 차비의 입궁은 이 무렵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李泳鎬, 2003, 앞의 논문, p. 89의 주166) 참조. 그의 이러한 견해는 원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비를 들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54) 李泳鎬는 혜공왕이 원비와 차비를 동시에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두 명의 왕비를 동시에 둔 것은 특정 가문에 대한 왕실의 지배에서 벗어나 귀족사회의 화합을 위한 혜

공왕이 김장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왕권의 신장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필 김장의 딸을 왕비로 삼았을까 하는 것이다. 김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무어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혜공왕이 그의 딸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가 낮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혜공왕은 김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과 힘을 합하여 새롭게 정국을 주도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혜공왕의 노력은 새로운 저항에 부딪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H. 상대등 金良相이 상소하여 시정을 극론하였다(『三國史記』 권9, 惠恭王 13년 4월)

위의 기록을 보면 혜공왕 13(777)년 상대등 金良相이 시정극론을 하였다고 한다. 그가 올린 상소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정을 극론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혜공왕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드러낸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⁵⁾ 그가 혜공왕 12년에 있었던 모든 개혁적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전부 반대의 의견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의 불만을 자아내게 하였던 어떤 일이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혜공왕의 어떤 조치에 대하여 그가 불만을 드러낸 것일까 하는 것이다.⁵⁶⁾ 이를 알기 위해서는 김양상의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공왕의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李泳鎬, 2003, 앞의 논문, p. 85). 그러나 두 명의 왕비가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55) 혜공왕 13년 김양상의 상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첫째로 중대 왕권 복구에 대한 일련의 경고로 보기도 하고(李基白, 1974, 앞의 책, pp. 236~237 및 金壽泰, 1996, 앞의 책, pp. 125~135), 둘째로 혜공왕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에 대한 반기이자 김양상으로 대표되는 내물왕계 김씨 세력의 이탈로 보기도 한다(李文基, 1999, 앞의 논문, pp. 838~839). 셋째로 재앙과 이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국왕의 실정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비장한 간언으로 해석하고 있다(李泳鎬, 1995, 앞의 학위논문, p. 43). 넷째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나타나는 반대 세력의 움직임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상소로 보기도 한다(박해현, 2003, 앞의 책, pp. 173~174).
- 56) 李泳鎬는 2003, 앞의 논문, p. 89의 주 166)에서 후비의 입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양상은 경덕왕 23년 1월부터 혜공왕 4년 10월까지 시중을 지냈다. 약 4년 9개월가량 정권의 교체기에 시중직에 있었다. 그런 그가 시중직에서 물러난 것은 혜공왕 4년에 일어난 대공의 난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⁵⁷⁾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그는 혜공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한 이후 만월부인이 섭정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이었다기보다는 지지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도 시중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만월부인과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음을 헤아릴 수 있다. 비록 대공의 난으로 말미암아 시중직에서 물렸다고는 하지만 혜공왕 7년 신덕대왕신종 제작에 있어 金鬮와 더불어 또 다른 주조 책임자로 참여하였다.⁵⁸⁾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그는 혜공왕 및 만월부인과는 정치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김양상은 혜공왕 10년 9월 이찬 신유에 이어 상대등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그가 혜공왕의 반대세력인 아난 친혜공왕적 세력일 가능성을 크게 암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김양상은 혜공왕이 친정을 시작하자 만월부인과는 거리를 두고 도리어 혜공왕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월부인이 섭정하는 동안에는 만월부인과 정치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혜공왕이 친정을 시도하자 만월부인보다는 혜공왕과 정치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김양상이 신유에 이어 상대등직에 올랐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한 것을 입증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악이 옳다면 김양상은 반혜공왕파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리어 혜공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즉 혜공왕이 친정을 시작한 직후부터 그가 시정을 극론하는 상소문을 올리기 전까지는 혜공왕을 도와 정국을 주도하였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또한 김양상의 어머니가 성덕왕의 딸이므로 혜공왕과 혈연적인 인척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⁵⁹⁾ 그러한 김양상이 이 때에 이르러 갑자기 시정을 극론하는 상소를 올렸다면 이는 적어도 혜공왕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만을 드러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57)李文基, 1999, 앞의 논문, pp. 822.

58) 檢校使 肅政臺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金良相으로 되어 있다.

59) 이종욱, 2002, 『신라의 역사』2, 김영사, p. 130쪽에서 비록 왕정에 반기를 든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반전제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혜공왕은 재위 7년 무렵에 만월부인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시작하면서 당시 유력 진골 귀족들 즉 김웅이나 김양상의 도움을 받아 정치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성덕대왕신종명문을 통해 짐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혜공왕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선비인 신보부인을 출궁시켰다. 이와 같은 혜공왕의 조치에 대하여 만월부인의 지지세력이었던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켰고 뒤이어 염상과 정문의 반란도 이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김양상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의 도움으로 반란을 진압하였고 결국 재위 12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양상이 혜공왕 13년 4월에 시정에 대하여 극론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혜공왕의 정국 운영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서 혜공왕의 지지세력이었던 김양상 일파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양상 일파의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혜공왕 12년의 관호의 복구라든가 오묘제의 재정립 등은 김양상 일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그들이 불만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리어 다른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래도 혜공왕 12년 후반기에 있었던 김장의 딸을 후비로 들인 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즉 혜공왕이 김양상 일파의 도움으로 받아 개혁을 추진한 이후 김장의 딸을 후비로 들이고 장인인 김장을 중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 불만을 제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김양상 일파는 혜공왕을 도와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므로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김양상 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가운데서 새로운 왕비를 배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혜공왕은 김장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혜공왕의 이러한 혼인은 김양상 일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또한 잘 알 수는 없지만 김장은 김양상과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반발이 컸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혜공왕이 김장의 딸을 후비로 맞이한 다음 김장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김양상 일파는 정치적으로 견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양상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이에 김양상을 대표로 하여 시정을 극론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측에 무리가 없다면, 김양상이 시정을 극론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 이

유를 이제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혜공왕은 김양상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의도와 달리 김장의 딸을 왕비를 선택함으로써 그들과 거리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김양상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상소를 올리자 혜공왕은 김양상 일파를 달래기보다는 도리어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에 혜공왕은 그 해(13년) 10월에 金周元을 시중으로 임명하였는데 김양상 세력을 견제토록 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된 조치였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혜공왕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이와 같은 행위는 정국의 균형을 무너뜨렸다.⁶⁰⁾ 그것은 혜공왕 16년 金志貞의 난에서 비롯되었다. 김지정이 무리를 이끌고 난을 일으켜 결국 왕과 왕비가 반군에 의해 살해되었다.⁶¹⁾ 물론 『삼국유사』에서는 김경신의 무리가 혜공왕을 시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리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혜공왕의 김양상 세력과의 대립에서 김주원의 배반과 더불어 김장의 세력이 김양상의 세력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김장과 김주원을 통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혜공왕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김양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IV. 맺음 말

신라 중대말 혜공왕대의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8세의 어린 왕의 즉위로부터 시작된 만월부인의 섭정 그리고 혜공왕의 친정으로 이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의 반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란병에 의하여 왕과 왕비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보면 신라 중대가 혜공왕을 마지막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60) 김주원은 무열왕계로, 태종무열왕의 6대손이었다(『三國史記』권44, 金陽전). 따라서 혜공왕과는 혈연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혜공왕이 그를 시중에 임명한 것은 김양상 일파를 견제토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혜공왕의 의도와 달리 그는 김양상 일파와 협조를 한 것 같다. 그것은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한 이후 상재로 있었던 것에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1)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왕과 后妃가 난병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훈은 후는 만월태후로 그리고 비는 혜공왕의 원비와 차비로 이해하였다(신정훈, 2010, 앞의 책, p. 188의 주 187) 참조). 그리고 김수태는 후비는 태후 한 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만월부인이라고 하였다(김수태, 2011, 앞의 논문, p. 170). 그러나 두 연구자의 이와 같은 해석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아진다.

좋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서 신라 중대에 누적되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결국에는 혜공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라 중대말 혜공왕대 정국의 동향을 왕의 혼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혜공왕은 두 번이나 혼인을 하였는데, 첫 번째 왕비는 만월부인의 측근인 유성의 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왕비는 김장의 딸인 창창부인이었다. 혜공왕이 두 번이나 혼인을 하게 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 때문이었다. 첫 번째 왕비와 혼인을 한 것은 왕모의 섭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두 번째 혼인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혜공왕이 두 번이나 혼인을 하게 된 것은 그만의 독특한 일이 아니었으며 신라 중대의 여러 왕들이 하였던 것과 같은 정치적 행위였다. 즉 혜공왕도 중대 여러 왕들이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맞이한 왕비를 출궁시키고 새로운 왕비와의 혼인을 이루어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혜공왕의 이러한 노력은 도리어 그를 지지하였던 세력인 김양상 일파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혜공왕은 중대 여러 왕들이 왕비를 교체하여 왕권을 강화한 것을 표본으로 삼고 그러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혜공왕은 반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두 번의 혼인은 신라 중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혼인은 신라 하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져오게 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 중대의 정국의 동향과 관련하여 적잖은 연구가 왕당파와 반전제주의파의 대립이라는 각도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혜공왕대의 정국도 이와 같은 테두리 내에서 이해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신라 중대 정치사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과거와 같이 설명되어 온 신라 중대 정치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당시의 정국을 혜공왕의 혼인을 통해 새롭게 보고자 하였다.

[논문투고일 : 1월 22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7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저서

-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일조각
- 박해현, 2003,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 박해현, 2003, 『新羅中代 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 濱田耕策, 2002,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신정훈,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8세기 신라의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한국학술정보
- 鈴木靖民, 1974, 『古代の朝鮮』, 學生社
- 鈴木靖民, 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 이종욱, 2002, 『신라의 역사』2, 김영사

2. 논문류

- 김수태,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新羅史學報』22
- 박해현, 1997, 「신라 경덕왕대의 외척세력」 『한국고대사연구』 11
- 濱田耕策, 1981, 「新羅の聖德大王神鐘と中代の王室」 『响沫集』 3
- 鈴木靖民, 1967, 「金順貞·金邕論濱-新羅政治史の一考察田-」 『朝鮮學報』 45
- 李基白, 1958, 「新羅 惠恭王代の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 李基白, 1970, 「新羅 執事部の 成立」 『震檀學報』 25·26·27합집
- 李文基, 1999,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52
- 이영호, 2003, 「新羅의 王權과 貴族社會-중대 국왕의 혼인 문제를 중심으로-」 『新羅文化』22
- 李泳鎬, 2011, 「통일신라시대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 전덕재, 2007, 「신라 중대」 『한국고대사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 조범환, 2011, 「新羅 中代 聖德王代이 政治的 動向과 王妃의 交替」 『新羅史學報』